

시간과 공간 초월한 융복합 아시아 예술의 세계

‘ACC 미래상’ 김아영 첫 수상 시상전시 ‘딜리버리 댄서의 선’ 오늘부터 문화창조원 전시1관 미래의 가상도시 배경 스토리 소멸해가는 전통 시간관 주목

먼 미래 고립된 가상의 도시 노바리아에는 딜리버리 댄서가 있다. 이 곳은 과학 기술을 통해 완벽하게 제어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고도로 발전된 질서를 유지하며 외부 세계와의 네트워크가 불필요한 세계다. 딜리버리 댄서들은 이 시스템 안에서 끝도 없이 이어지는 첨단 배달 서비스를 수행한다. 어느날 한 딜리버리 댄서가 소멸된 것으로 알려진 과거의 시간관이 담긴 유물을 배달하게 되면서 사회의 균열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들은 노바리아를 벗어나 더 넓은 우주,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 수 있을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29일 문화창조원 복합전시 1관에서 진행되는 시상 특별전시 성격의 ‘ACC 미래상 2024 김아영-딜리버리 댄서의 선: 인버스’ 오픈식을 열고 미래 예술의 세계를 선보였다. ‘ACC 미래상’은 혁신적인 미래 가치와 가능성을 확장한 창조적 예술가를 발굴하기 위해 제정된 융·복합 예술분야

수상 제도다. ACC는 새로운 예술적 사고와 가능성을 제시하는 작가 1인(팀)을 선정해 올해부터 격년제로 수상제도를 운영한다. 전시는 내년 2월 16일까지 이어진다.

‘ACC 미래상’ 첫 수상자로는 김아영 작가가 선정됐으며, 이번 전시에서 김 작가는 ACC의 제작지원을 통해 제작한 대규모 신작을 선보인다. 새롭게 선보이는 ‘딜리버리 댄서의 선: 인버스’는 게임엔진 기반의 컴퓨터 그래픽 영상과 생생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품으로 가로 길이 11미터의 대형 스크린 3개를 사용하는 3채널 영상 등 1560㎡ 규모의 복합1관을 가득 채우는 대규모 미디어 및 공간 설치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딜리버리 댄서의 선: 인버스’는 김 작가의 이전 작품 ‘딜리버리 댄서의 구’에서 가상 세계 속 서울을 질주하며 시간 지연 현상과 내비게이션의 미로에 빠졌던 두 주인공이 이번에는 새로운 가상 도시에 놓이게 되는 설정으로 시작한다. 소멸된 것으로 알려진 과거의 시간관이 담긴 유물을 배달하게 되면서 서로 다른 시간관과 세계 사이를 오가는 사회의 충돌과 갈등을 파고드는 이야기다.

‘ACC 미래상’이 김 작가의 이번 작품에 주목하는 이유는 근대화와 제국주의, 전통과 토착, 역사와 미래로 연결되는 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전시 1관에서 진행되는 ‘ACC 미래상 2024 김아영-딜리버리 댄서의 선: 인버스’전의 모습.

가의 시간성과 근대성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작가의 작업은 근대성의 충돌과 파괴를 이해하고, 비서구적 시각과 아시아의 미래성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확장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또 김 작가는 인공지능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를 다루는 방식을 새롭게 접근한다. 작가의 사변적 서사에서 출발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연산 결과는 단순한 상상을 넘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미래를 그

려낸다. 전시에서는 오래된 역법의 기호들을 미래의 새로운 지표들로 재현하며 미래주의적 접근을 통해 관람객을 가상의 세계로 안내한다.

김 작가는 이주, 자본주의, 국가 이데올로기와 같은 거시적 서사를 고고학, 미래주의, SF적 상상력을 더해 혼성적이며 중첩적인 사변적 서사로 재구성하는 독특한 작업 세계를 구축해왔다. 지난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를 포함해 국내외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쳐왔으며, 최근 뉴욕현대대

미술관(MoMA)에서 특별 상영회를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딜리버리 댄서의 구(2022)’로 한국인 최초로 세계 최대 미디어아트 어워드인 ‘프리 아르스 일렉트로니카(Prix Ars Electronica)’에서 최고상인 ‘골든 니카(Golden Nica)’ 상을 수상했으며, 이 작품은 영국 테이트 모던에 소장되는 등 해외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날 오픈식에 참여한 김아영 작가는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예술적 사고와 가능성을 주목하기 위해 제정된 ‘ACC 미래상’ 첫 번째 수상자로 선정돼 기쁘다. 수상 혜택으로 주어진 대규모 전시를 준비하면서 예술적 역량이 크게 성장됨을 느꼈다”며 “아시아 예술인으로서 아시아의 가치, 미래 비전, 역사적 자산 등에 주목하며 관심분야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김아영 작가가 비서구 문화권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아시아와 인류보편의 미래가치를 탐구하고, 인공지능과의 협업을 통해 미래 삶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는 점이 ‘ACC 미래상’의 수상 취지와 맞닿아 있다”면서 “이번 전시가 관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도선인 기자



지난해 (주)서울옥션 제로베이스 경매에 출품된 작품들의 모습. 전남문화재단 제공

서울옥션 제로베이스 경매 참여자 공모

전남문화재단, 내달 9일부터 남도사이버갤러리서 신청

전남문화재단은 지역 작가들의 미술시장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주)서울옥션과 협업해 개최하는 ‘제로베이스’ 온라인 경매 참여자를 오는 9월 9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

서울옥션 출품 ‘제로베이스’ 온라인 경매는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작가들의 작품에 대해 작품가 0원부터 가격을 책정해 경매에 붙이는 것이다.

이는 국내 최대 미술 작품 경매회사인 서울옥션에서 기획한 프로젝트로 전남작가들의 시장 진출을 위해 전남문화재단과 2020년부터 협업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출품된 296점이 100% 낙찰됐고 88회의 경합 끝에 1610만원에 낙찰된 작품도 있다.

이번 공모에 참여한 전남작가의 작품 중 서울옥션이 최종적으로 경매 출품작을 선정하게 된다.

경매에 참여하는 작가는 서울옥션 강남센터와 화순하니움센터에서 전시를 진행하고 서울옥션과 전남문화재단 채널을 통해 홍보 기회도 갖게 된다.

전남에 현재 거주 중이거나 전남 출생 또는 전남 소재 초·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미술 분야 작가라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9월 9일부터 20일까지 남도사이버갤러리(www.namdogallery.or.kr)에 작가 회원으로 가입해 경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작품과 주민등록등초본, 개인정보제공 이용동의서를 등록하면 된다.

한편 재단은 2009년 설립 이래 전남의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남도예술은행’을 추진 중이며 전남 미술작가의 작품 약 3700점을 유통·판매하고 있다.

올해는 제로베이스 경매와 더불어 ‘상하이아트페어’, ‘뱅크아트페어’ 등 국내외 유명 아트페어에 참가할 화랑(갤러리)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꾸준히 작업세계를 다져온 작가를 발굴해 수도권 미술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남도사이버갤러리(www.namdogallery.or.kr), 전남문화재단 홈페이지(www.jncf.or.kr) 참조 또는 문예창작진흥팀(061-280-5825)으로 문의. 도선인 기자

가을 문턱에서 감상하는 9월 ‘목요콘서트’

5일 프랑스클래식 등 3회 공연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광주문화재단은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9월의 목요콘서트 무대를 오는 5일, 12일, 26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9월 목요콘서트 무대는 △10회차, 베이스플룻앙상블 ‘베이스플룻앙상블과 함께하는 프랑스의 낭만’ △11회차, 선클라비어 ‘사랑, 미술 그리고 음악’ △12회차, 클로제앙상블 ‘현악, 청춘의 조각을 담다’로 준비돼 있다.

먼저 9월 5일 베이스플룻앙상블과 함께하는 공연에서 ‘파리 올림픽’의 추억을 관객들과 함께 공유하며 다양한 프랑스 작품을 연주한다. 1부에서 포레의 솔로곡, 드뷔시의 작은 모음

곡, 베르토미외의 고양이 곡을 선보인다. 2부에서는 이베르의 전주곡과 더불어 비제, 데메르스망, 기욤 등 다양한 작곡가의 곡을 선보인다.

무대에 서는 ‘베이스플룻앙상블’ 공연팀은 2008년 창단했으며 고전 음악은 물론 재즈 및 영화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편곡·연주해 선보인다. 플루트 박지혜·조효주·김민정·고다은, 피아노 정지연이 이번 무대에 선다.

9월 12일 무대는 선클라비어의 ‘사랑, 미술 그리고 음악’이다. 미술과 음악, 예술작품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 있다.

특히 예술가들의 삶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스크린 속 미술작품에 담아 내고 음악(피아노 연주)을 곁들인 융복합 공연이다.

‘선클라비어’는 조선대학교 음악교육과 및 대학원 졸업생 동문들이 2001

년에 창단한 단체다. 피아노 문마리아·조소미·박우현·황상희·정의민·변혜진·설효선, 소프라노 권효진, 기획 및 해설에 클래식 큐레이터인 전수아가 이번 무대에 선다.

9월의 마지막 공연은 26일 클로제앙상블의 ‘현악, 청춘의 조각을 담다’다. 청춘의 여정을 4가지 테마로 나눠 음악으로 풀어낸 아름다운 선율의 현악 하모니다. ‘클로제앙상블’은 ‘close(가까워지다, 사이를 좁히다)’에서 비롯된 뜻으로, 이번 무대에 바이올린 진채영·김혜린, 비올라 이예린, 첼로 김수연·한혜린, 피아노 김한비, 해설 이노율이 출연한다.

목요콘서트 입장료는 5000원이다. 수익금은 전액 공연팀에 전달된다. 관람 예약 및 문의는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062-670-7942)으로 하면 된다. 도선인 기자

남구장애인 문화예술단 특별전

내달 24일부터 전일빌딩245

광주 남구장애인복지관 소속 문화예술단 장애인 작가들이 오는 9월 24일부터 나흘간 전일빌딩245에서 2024 남구장애인 문화예술단 & 꿈틀꿈틀 웹툰창작소 회화·웹툰 특별전 ‘함께 바라, 봄 4’를 갖는다. 이번 전시는 광주 남구가 장애인 예술인 양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예술성과 권리보장을 지원하면서 마련됐다.

참여 작가는 박희선, 조유경, 주현민, 차정화, 김민준, 유지민, 임지아, 백은영 씨 등이 회화전에 이름을 올렸고, 웹툰반 작가들도 전시에 참여했다. 회화 지도는 전시기획자인 주홍 작가가 맡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수국작가인 로사 백은영 씨가 주목을 끈다.

뇌병변(2급) 장애를 갖고 있는 그녀는 12년 전 광주로 주거지를 옮긴 뒤 가끔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을 바라보며 ‘나도 언

젠가 저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라는 바람을 품고 있었다고 한다.

이번 전시에서 그녀의 바람이 화폭에 담겼다. 작품명은 ‘무등의 수국밭에는 내가 없었다’이다. 그의 작품은 실제 무등산에 올라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 화폭 속 무등산 풍경은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그는 “일반 화가들처럼 잘 그리지는 못한다 무등산을 배경으로 수국꽃 하나하나 점을 찍을 때마다 무등산을 오르는 상상이 든다”면서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평온함을 찾고 한 작품씩 완성할 때마다 성취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